

올해는 외부 자료나 참고 이미지를 배제한 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스케치를 통해 형태를 수정하거나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남겨진 조각에서 출발해 그에 어울리는 조각들을 찾아가며 퍼즐을 완성하듯 작업을 이어갔다. 이는 마치 숨겨진 지도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작업의 출발점은 종종 시구, 글, 또는 어떤 장면에서 연상된 이미지였다. 이러한 과정은 온전히 자유로운 연상과 상상에 맡겨 진행되었는데, 우연이 또 다른 우연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키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신비로운 느낌이 찾아왔다. 조각들은 어떤 형태로 잘려 나가도 결국 공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각각의 조각은 불완전하고, 하찮으며, 때로는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았으나, 그 요소들은 공간 속 어느 지점에서든 자신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간의 여백은 형태를 완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흥미로웠던 것은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작업의 역설적 체험이었다. 사진 속 사물들은 단순한 참고 이미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작업의 끝자락에서야 어딘가에서 불쑥 내 눈에 띄는 것들이었다. (이미 진행된 작업이 나중에 어떤 사물을 다시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때 조각과 이미지, 우연과 배열은 앞뒤가 분명한 순서로 움직이지 않았다. 남겨진 조각은 다음 조각을 부르고, 우연히 놓인 형태는 다시 공간의 방향을 바꾸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형태가 처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각과 여백 사이에서 뒤늦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